

천년 고찰 법화사

고려시대 비보사찰이었던 법화사는 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오랫동안 화려함을 자랑했던 이곳은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오늘날 예전의 자리에 다시 세워진 법화사는 천년 고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법화로 | 서귀포시 하원동 406-4 ~ 서귀포시 하원동 663-5(약 1.2km)

하원로 | 서귀포시 하원동 394-4 ~ 서귀포시 하원동 674-1(약 0.8km)

지세뫼로 | 서귀포시 하원동 329-7 ~ 서귀포시 하원동 190-3(약 1km)

월평로 | 서귀포시 월평동 476-7 ~ 서귀포시 월평동 232-1(약 1.5km)

구산봉로 | 서귀포시 하원동 1276 ~ 서귀포시 대포동 368-3(약 0.7km)

법화로 | 법화사

하원동의 마을 중심에서 법화사로 이어지는 길인 **법화로**는 고려시대 유명한 사찰이었던 법화사를 상징한다. 법화사는 수정사와 더불어 고려시대 제주에 있던 비보사찰이었다. 법화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굴된 기와에서 고려시대 충렬왕 때 중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보다 이전에 창건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혹자는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와의 관련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화사 경내에는 장보고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시대에 법화사는 크게 세력을 넓혔을 것이다. 조선초기까지 노비가 280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니 제주에 있던 사찰치고는 꽤나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법화사에는 원나라 사람인 양공이 주조한 불상도 있었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원나라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화사

하지만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법화사 역시 퇴락하고 만다. 조정에서는 법화사의 노비를 30명으로 줄여버렸고,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거의 폐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세력을 잃었다고 한다. 이후 법화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봉려관 스님에 의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4·3사건 때 토벌대에 의해 절이 불에 타고, 6·25전쟁 때는 육군의 숙영지로 사용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법화사 안에는 하원동 사람들의 식수로 이용되던 법화사물이 있고, 넓은 규모의 연못인 구품연지가 있어 여름이면 연꽃 가득 핀 연꽃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하원로/지세못로 | 하원동

법화로 동쪽에는 하원동의 중심 도로인 **하원로**가 지난다. 하원동은 예전에 구산봉에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오름골’ 또는 ‘악동(岳洞)’이라 불렸다. 그러다 법화사에 있는 원(院)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하원(下院)이라 부른 것이 오늘날 하원동(河院洞)의 유래라고 전해지고 있다. 하원동은 해안가부터 한라산 영실까지 남북으로 길게 이



탐라왕자묘

어진 마을이다. 하원동에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탐라왕자묘로 알려진 무덤도 있다. 하원동의 북쪽에 위치한 이 무덤에는 세 개의 묘가 나란히 늘어서 있다.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초본>에 대정현에서 45리 떨어진 곳에 왕자묘가 있다는 기록에서 이곳이 왕자의 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차례 도굴이 되면서 아직까지 누구의 무덤인지 밝혀지고 있지 않다.

하원로 동쪽으로 나란히 이어지는 **지세뫼로**는 옛날 토기를 굽기 위해 마련한 곳으로, 이 지역 땅의 재질이 기와나 그릇을 만드는데 적당해서 토기를 굽기 위해 만든 연못이라고 한다. 지세라는 말은 기와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이 주변에서는 예전에 사용했던 기와와 그릇의 파편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월평로 | 월평동

하원로 남쪽으로는 월평동(月坪洞)의 지명을 반영한 **월평로**가 이어진다. 월평동은 땅이 좋지 않은 곳이라 농사가 어려워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무지였다고 한다. 그러다 농사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곳을 개간해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월평동은 마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예전에는 도순동의 일부로 여겼었다. 이후 4·3사건이 일어나자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월평동에 성을 쌓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이 소개되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살게 되면서 마을의 규모가 점점 커져 지금과 같은 마을이 되었다고 전한다.

구산봉로 | 구산봉

범화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산봉로**는 구산봉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곳이어서 망오름이라 하기도 한다. 구산봉에 오르면 멀리 서쪽의 송악산에서 동쪽의 삼매봉까지 시야에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봉수대가 설치되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풍수지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산봉이 거린사슴오름에서 노루를 쫓아온 개가 바닷가에 있는 범섬의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드러누운 형상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개오름이라는 별칭도 있다. 사슴과 호랑이가 들어간 마을 주변의 지명을 이용한 재미있는 해석이다.